

한  
여름  
밤의  
꿈

# 한 여름 밤의 꿈

글그림 양정호

글  
그  
림

양  
정  
호

20  
24

양  
지  
초

2024' 양지초



# 한 여름 밤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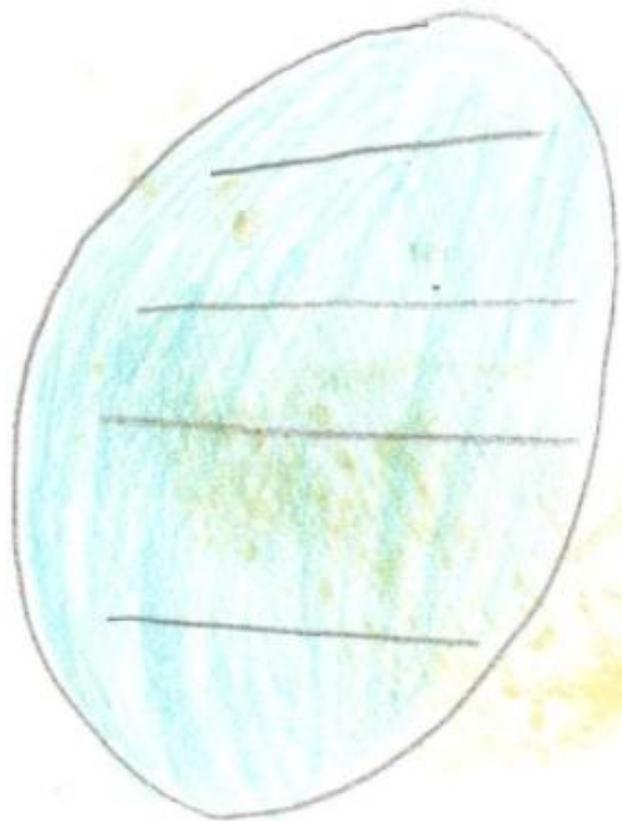
글그림 양정호

2024' 양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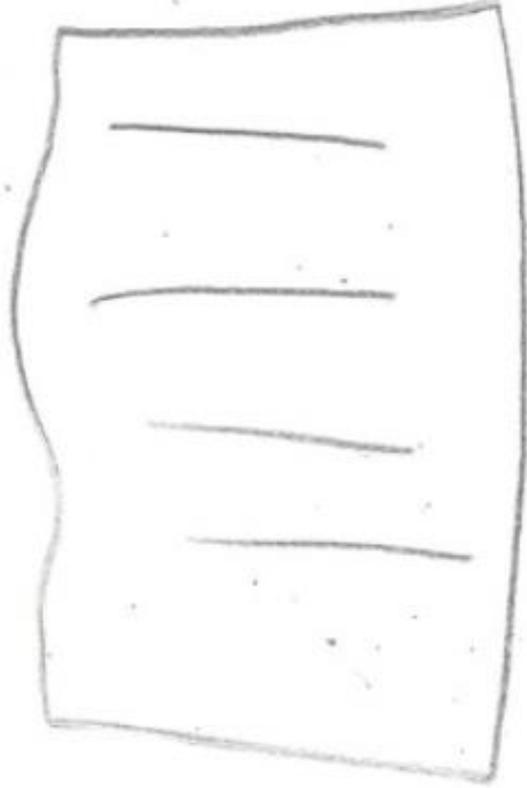
드디어 방학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터에 갔다.  
신나게 놀아야지.





그런데 놀이터가 텅텅 비었다.  
친구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놀러 갔다.  
준우는 제주도로 노아는 가족끼리 하와이를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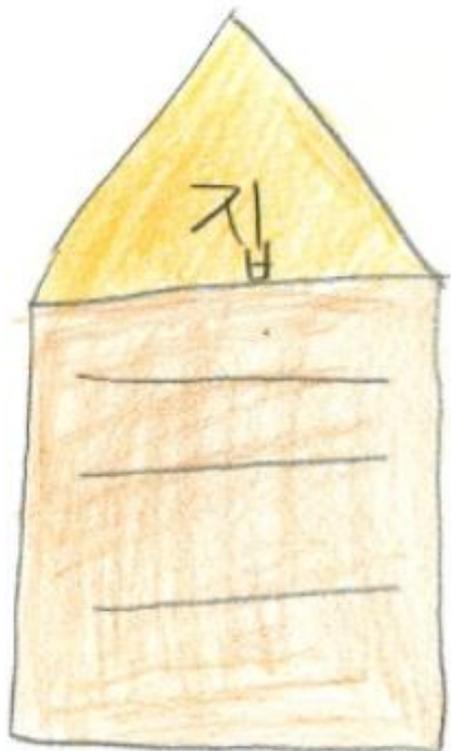




혼자서 그네를 탔다.  
그다음엔 정글짐을 탔다.  
내려와서 이번엔 미끄럼틀을 탔다.  
모두 지루했다.

“에이 심심해. 집으로 가야겠다.”





엄마가 오셨다.

”엄마, 우리도 여행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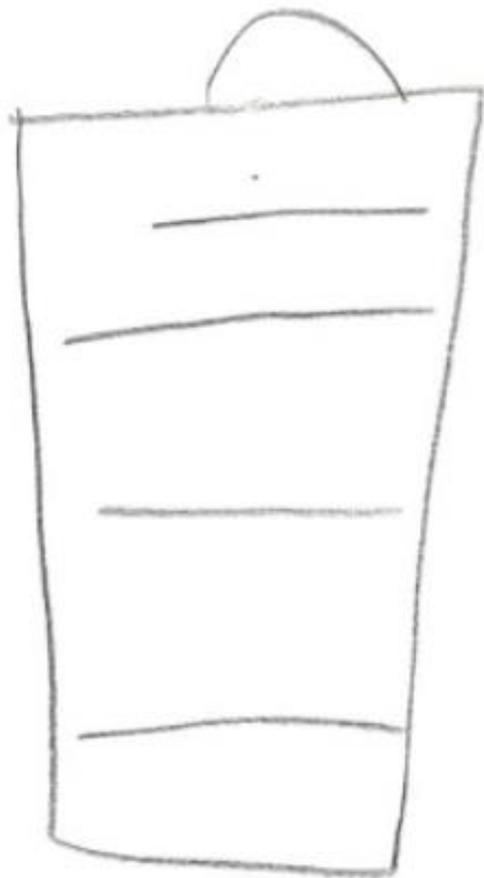
엄마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여행은 무슨 여행이니? 들어가서 공부나 해.”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해.”



난 방에 들어가서 방학 숙제를 하다가  
꾸벅꾸벅 졸았다.  
그러다 옆드려 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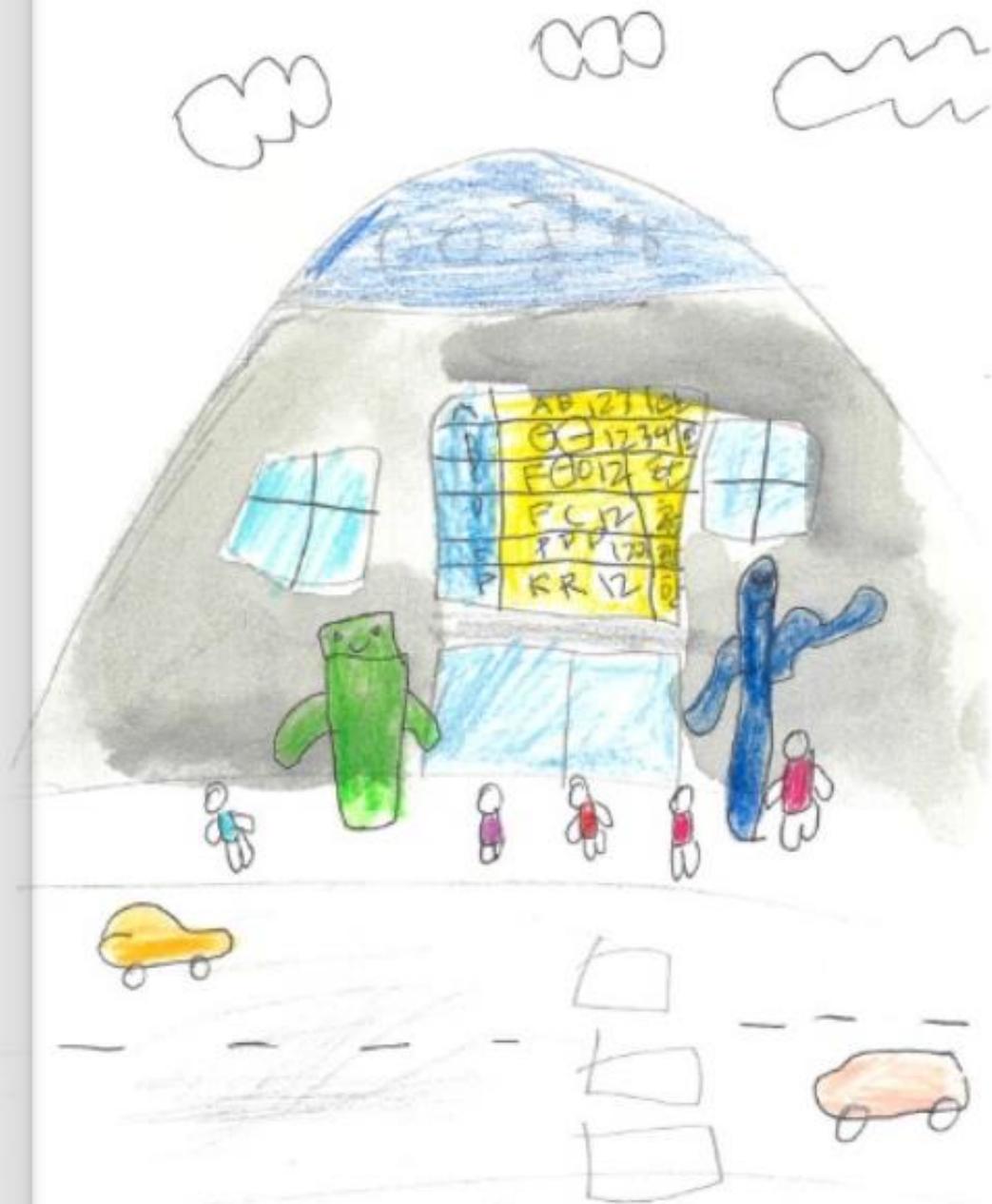


“우리 여행 갈 거야.”  
엄마가 방문을 열고 말했다.  
마음이 바뀌었네. 신난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짐을 쌌다.  
바다에서 놀기 위해 준비물도 챙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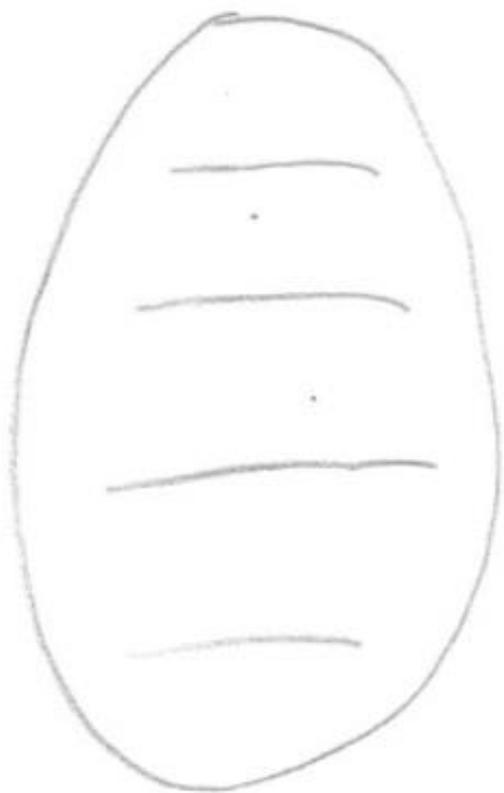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신기한 게 많았다.  
 공항에 있는 보안 검색대를 지나니  
 짐을 찾는 곳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탈 비행기가 왔다.  
“드디어 곧 있으면 간다.”





비행기는 엄청나게 컸다.  
하늘에 날아다닐 때는 작아 보였는데  
눈앞에서 보니 컸다.

비행기 탈 생각을 하니 긴장도 되고 신난다.



# 제주도 여행



“엄마, 근데 저희 어디로 가요?”  
“제주도 가는 거란다.”

• 엄마가 얼른 타자고 걸어가셨다.

제주도라니.  
진짜 신난다.  
수영도 해야지.

비행기에 들어서니 의자가 많았다.  
내 자리는 창문 쪽이었다.  
하늘을 볼 생각을 하니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



도시락

우린 제주도에 도착하자 바로 바다로 갔다.  
바다에서 수영을 했다.  
가져온 튜브로 신나게 놀았다.

백은 아린다다  
뽀뽀



낮에 너무 열심히 놀아서인지 금방 잠이 들었다.

오늘도 바다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더니 쓰  
나미처럼 몰려 왔다. 으악! 난 비명을 질렀다.





쾨!  
난 침대에서 떨어졌다.  
꿈을 꾸는 것이다.  
너무 가고 싶어서 꿈까지 꺾나보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에 엄마, 아빠가 나를 불렀다. 엄마가 말했다.  
"우리 내일 휴가 가자. 장소는 제주도."  
난 믿어지지 않았다.  
진짜 제주도를 가다니. 내 말을 들어 준 엄마가 고맙다.  
"얼른 짐 챙기고."

